

# Polyester 채산성 악화 파장...

## 2003년 코스트 상승분 320달러 ... 가격 올려도 수익성 없어

Polyester 원료가격이 급등하고 있어 Polyester 생산기업들이 적자의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다.

2003년 중동 정제가 긴박하게 돌아감에 따라 Naphtha 가격이 C&F Japan 톤당 380달러에 육박하는 등 고가 행진을 계속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에틸렌(Ethylene) 및 BTX 가격도 초강세를 지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Polyester 원료는 수급도 타이트 기미를 보여 2003년 3월 들어 PTA(Purified Terephthalic Acid) 가격이 톤당 800달러, EG(Ethylene Glycol)는 720달러까지 상승했다.

이에 따라 2003년 들어 Polyester 원료 코스트가 총 320달러 상승해 채산성이 악화됨으로써 Polyester 제품 가격을 올리지 않으면 가동률을 감축하는 메이커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PTA는 원료 P-X(Para-Xylene) 가격이 대폭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 상승분을 전가하고 있다. PTA 계약가격 상승폭은 거래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일본에 가장 비싸게 공급하고 있는 BP는 3월분 계약가격을 C&F 810달러로 발표하고 거래처와 교섭에 들어갔다. Mitsui Chemicals은 800달러, Mitsubishi Chemical은 790달러로 공표했다.

P-X는 원유가격이 폭등함과 더불어 인디아 Reliance Industries의 플랜트 트러블과 신 PTA 플랜트의 가동으로 수급타이트가 강화되고 있다. P-X 공급기업들은 3월 가격을 2월에 비해 최대 270달러(50% 미만) 인상함으로써 대대적인 가격인상을 단행하고 있다.

EG도 Naphtha 가격급등과 수급타이트 때문에 2003년 들어 200달러 이상 상승해 FOB Korea 톤당 720달러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따라 Polyester 원료의 원가 코스트 상승분이 총 320달러에 달해 Polyester 산업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Polyester 가격도 상승하고 있는데, 2003년 2월 중국의 Polyester Chip 가격은 2002년 12월에 비해 3000元 상승해 1만7500元대로 올랐으며 POY도 2500元 상승했다. Cotton 가격도 8000元에서 1만7500元으로 상승했다.

Polyester 원가상승분을 전가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2002년 12월 시점에서 수익이 악화돼 코스트 상승분의 전가만으로는 채산이 맞지 않는 상황이다.

따라서 중소규모의 Batch 운전설비를 가동하고 있는 메이커들은 가동률을 낮추거나 아예 가동을 중단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연속중합 운전의 대형설비는 아직까지 풀가동하고 있으나, 원료강세에 Polyester제품 약세가 계속되면 가동률을 낮출 가능성도 있어 PTA 감산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3월 이후가 Polyester의 성수기이기 때문에 수요증가에 따라 코스트 상승분이 흡수되면 원유, P-X에서 연동된 가격상승이 Polyester제품 가격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Chemical Journal 2003/12/12>